**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 전문가, 고립의 심화는 심각한 인권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제네바 (2022년 3월 21일) – 유엔 전문가는 오늘 인권이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력 재개를 위해 국제공동체가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립이 지속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임기 내 마지막 [보고서](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2022-03/A.HRC49_74_advanceuneditedversion.docx)에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복귀하여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해당국에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고립된 채로 두거나 현 상황을 그저 유지만 해서는 해당국 내 심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특별보고관 임기는 2022년 7월 31일 마무리된다.

“안타깝게도 지난 6년 간 해당국 내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국민의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국제인권법을 준수할 것을 해당국 정부에 촉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로 2020년 1월부터 장기간 국경을 전면적으로 폐쇄하고 시도 간 이동을 제한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고립된 상황에 처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억압적인 통제가 더욱 강화됐는데, 국경 지대에서의 발견 즉시 사살(shoot-on-sight) 명령을 비롯해, 해외에서 반입된 정보를 접한 데 대한 처벌로 사형까지 가능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시행됐다.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는 여전히 운영 중이고, 국민을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특별보고관은 말하며, [관리소의 존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인권 침해의 본질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더했다. “이러한 인권 침해 다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자행되는 반인도범죄로 이어진다.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구체적인 책임 규명 과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다”고 말했다.

만성적 식량 불안정이 여전히 만연하고, 국경 차단이 무역 붕괴로 이어지면서 식량 불안정이 더욱 심화됐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가 식량, 보건의료 및 생계 수단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건데, 이제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특히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국민 일부가 기아와 굶주림에 처해있을 가능성도 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인권 협력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가령 감옥 내 환경이나 장애인 관련 사안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거나 경제권이나 사회권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최우선적으로 유엔 기구를 비롯한 국제 기구와 외교 관계자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며, “유엔은 이러한 절차를 협상하고 지원하여 인도주의 활동과 개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을 제공하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국제공동체에 촉구한다. 이는 적절한 수준의 보건 의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경을 개방하고 국제공동체와 소통을 재개하도록 이끌어내는 주요 조치로 역할할 수 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본인의 위임권한과 협력하고, 임기가 끝나기 전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특별보고관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과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분쟁을 보건데, 한반도에서 또다시 군사적 긴장이 시작되는 것을 회원국과 국제공동체가 함께 반드시 막아야 하며, 인권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국에는 유엔과 주요 국가가 한반도 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아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인권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Abuelas de Plaza de Mayo)을 대변하여 활동했다. 과거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직을 역임했다. 특별보고관 위임권한은 최근 인권이사회 결의 46/17을 통해 갱신됐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https://www.ohchr.org/EN/HRBodies/SP/Pages/Welcomepage.aspx)에 속하며,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독립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주제별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며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 국가별 웹페이지:* [*DPRK*](https://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PIndex.aspx)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웹페이지](https://seoul.ohchr.org/)

*추가 정보 및 언론 문의는* Ms. Sara Brandão (sara.brandao@un.org) 및 Ms. *Madoka Saji (+82 10 4230 3523 /* *madoka.saji@un.org* *)로 문의주십시오.*

*기타 유엔 독립전문가 관련 언론 문의는 및 Jeremy Laurence (**jeremy.laurence@un.org)로* *문의주십시오.*

*트위터(*[*@UN\_SPExperts*](https://twitter.com/UN_SPExperts)*)를 통해 유엔의 독립 인권전문가 관련 최신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냅시다.*** *#Standup4humanrights*[*http://www.standup4humanrights.org*](http://www.standup4humanrights.org/)